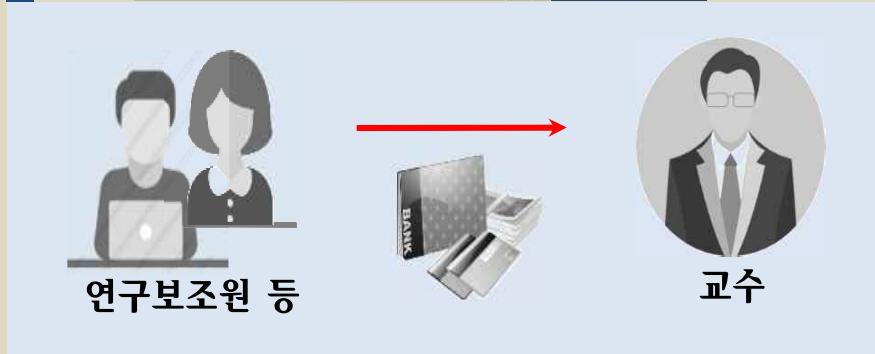




한국연구재단 감사 사례



인건비 공동관리 – 직접관리



- [신고내용]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등
- [감사결과]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등 범죄행위 확인 및 자료 확보
 - 학생인건비 수급전용 통장, 비밀번호 및 도장 직접 관리
 -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, 국내여비, 연구수당 등을 공동관리
 - 본인 과제 이외 타 교수 과제에도 학생을 참여시켜 인건비 공동관리
 - 교수는 연구비 부정행위 부인, 학생들 면담을 통해 범죄행위 확인
- [처분요구] 형사고발, 국가R&D사업 참여제한, 부정집행 연구비 환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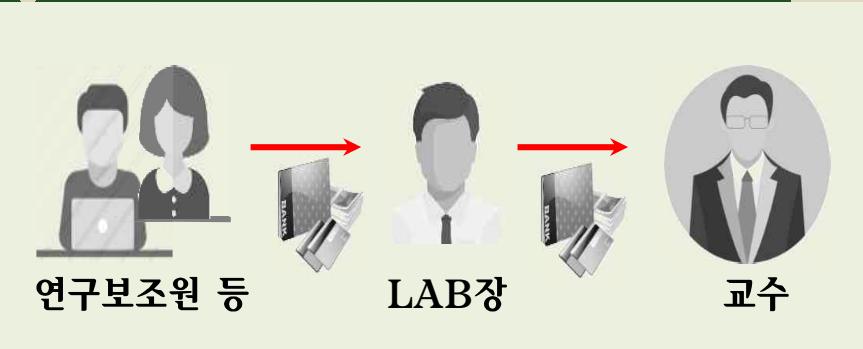
(3심) 징역 1년 6개월
사기 집행유예 2년

2011년부터 5년간 학생 6명에게
지급된 인건비 3.5억원 편취

2.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사례

○○대 김모 교수와 허모 박사

인건비 공동관리 – 제3자 개입



- [신고내용]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및 허위 학술대회 개최 등
 - [감사결과]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등 범죄행위 확인 및 자료 확보
 - 김모 교수와 허모 박사가 학생인건비 수급전용 통장, 카드 직접 관리
 - 학생인건비와 국내여비 등을 공동관리
 - 사건 은폐를 위해 보관하던 통장을 되돌려주고 허위 진술토록 지시
 - 본인이 회장인 OOOO학회의 학술대회 개최 경비 부정 집행 사실 확인
 - [처분요구] 2명 형사고발, 국가R&D사업 참여제한, 부정집행 연구비 환수

사기
구약식 별금 1천만원

김모 교수, 허모 박사 각각 벌금

3. 죄명 변경으로 재고발 사례

□ □ 대 조모 교수

- 2016.7.11. 감사결과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확인
업무상횡령(형법 제356조)으로 형사고발
- 2017.7.5. '업무상횡령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'으로 불기소 처분
- 2017.8.2.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
- 2017.9.22. 항고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항고 기각 결정
- 2017.11.28. 범죄혐의를 **사기(형법 제347)**로 변경하여 재고발
- 2018.8.30. 검찰 수사 후 사기로 **법원 기소**(현재 재판 중)

5. 최근 3년간 특정감사 현황

연구자 30명 형사고발

연구재단 설립 이후 형사고발 적극 추진
(3년간 74억원 적발, 연구자 30명 수사의뢰 · 고발)

구분	'16	'17	'18	합계
금액(백만원)	2,244	2,395	2,758	7,397
피고발인(명)	6	7	17	30

※ 9건(12명)은 종결, 나머지 사건은 현재 수사/재판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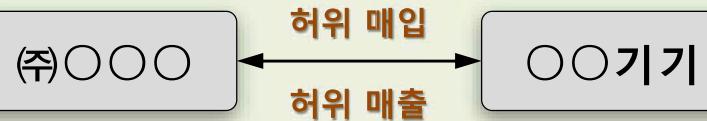
현금 7,300만원 적발



광주 소재 OO대학의
연구비 부정 집행
특정감사 현장점검 시
교수 연구실 캐비닛에서
현금 7,300만원 적발



회사운영비로 연구비 집행



부산 소재 (주)OOO은 OO기기와 공모하여
한국연구재단 지원 연구비 중 약 5억원을
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
(한국연구재단 형사고발 후 폐업 신고)

외국인 교수 추방

전주 소재 OO대학의 외국인 교수 "인건비
공동관리 사실 발설 시 본국으로 보내겠다" 협박



**본인이
이집트로
추방됨**